



한국 초등교육학회 2014년 가을 학술대회

1. 추계 학술대회

주제 : Culture Design: 한국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바깥에서의 생활과 학습문화

다음과 같이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가 열리니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안양 캠퍼스

- 질적연구 방법론 워크숍(2014년 10월 17일)
- 학술대회(2014년 10월 18일)

■발표 신청 및 기한 : 2014년 8월 30일

- 발표 원고 투고 : 조현숙 한국초등교육학회 간사
(cutebird@gnue.ac.kr), 010-4628-6889
- 양식 : 발표자 성명, 연락처, 발표 제목과 간단한 개요
- 문의 : 학술대회 학술위원장 진주교대 김영천 교수(pedakim@cue.ac.kr)

■ 개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사회적/국제적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우리들과는 달리 테크놀리지가 된 정보 사회에서 그리고 더 빨리 배워야 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과는 다른 학교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 속에서 하루를 그리고 10여년 이상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생활공간(Life space)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생활공간이 한국 학생들의 발달하는 자아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끼치는지에 대하여 문화적/인류학적/발달적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초등교육학회는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참여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적 활동과 경험들 나아가 학교 바깥에서의 문화적 경험과 노출이 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국내 처음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물리적/문화적/교육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발달과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석적으로 규명하고 비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그 어떤 교육적 목적과 실천은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이 아이들은 학교 바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고 있고, 학교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교과들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은 이미 교실 선생님이 가르쳐야 할 교과와 내용들을 이미 배운채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 생활에 날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적 환경과 문화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는 하나의 해결하기 힘든 아포리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달라진 학습환경과 교육과정 그리고 공부 문화에 대하여 우리 교육자와 교육학자 그리고 교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과 지혜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영역들



프로그램 1. 제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아이들의 학교공부와 변화

제 7차 교육과정, 그리고 개정 2007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과후 수업, 주 5일제 수업, 수평평가, 수준별 교육과정 등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많이 달라졌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들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비판단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생활과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달라진 학교 안에서의 공부방법들, 생활, 학교조직, 학생들간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교육자과 이론가들 그리고 행정가들이 알아야 하는 이 시대 학생들의 학교경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2: www, App, 스마트폰 그리고 한국 아이들의 일상세계

전세계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IT 활용의 문화 속에서 한국의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IT가 우리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공부 그리고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전자 학습 시대에 이들이 생각하는 교사, 공부, 그리고 학습공간, 교과서 등에 대한 또 다른 개념과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답들이 산재해 있는 전자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얻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학교교사와 가르침에 투사하는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프로그램 3: 방과 후에도 또 공부하는 아이들: 학원교육의 숨겨진 특징들

동북아시아 교육강국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한국의 아이들 역시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비는 이미 1년 30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이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게 되고 아울러 학원을 필수불가결한 생활공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 학교보다 잘 배우는 것들은 무엇이고 왜 이들이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를 교육학적/교수법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적 특징 속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이미 배우고 교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한국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의 다른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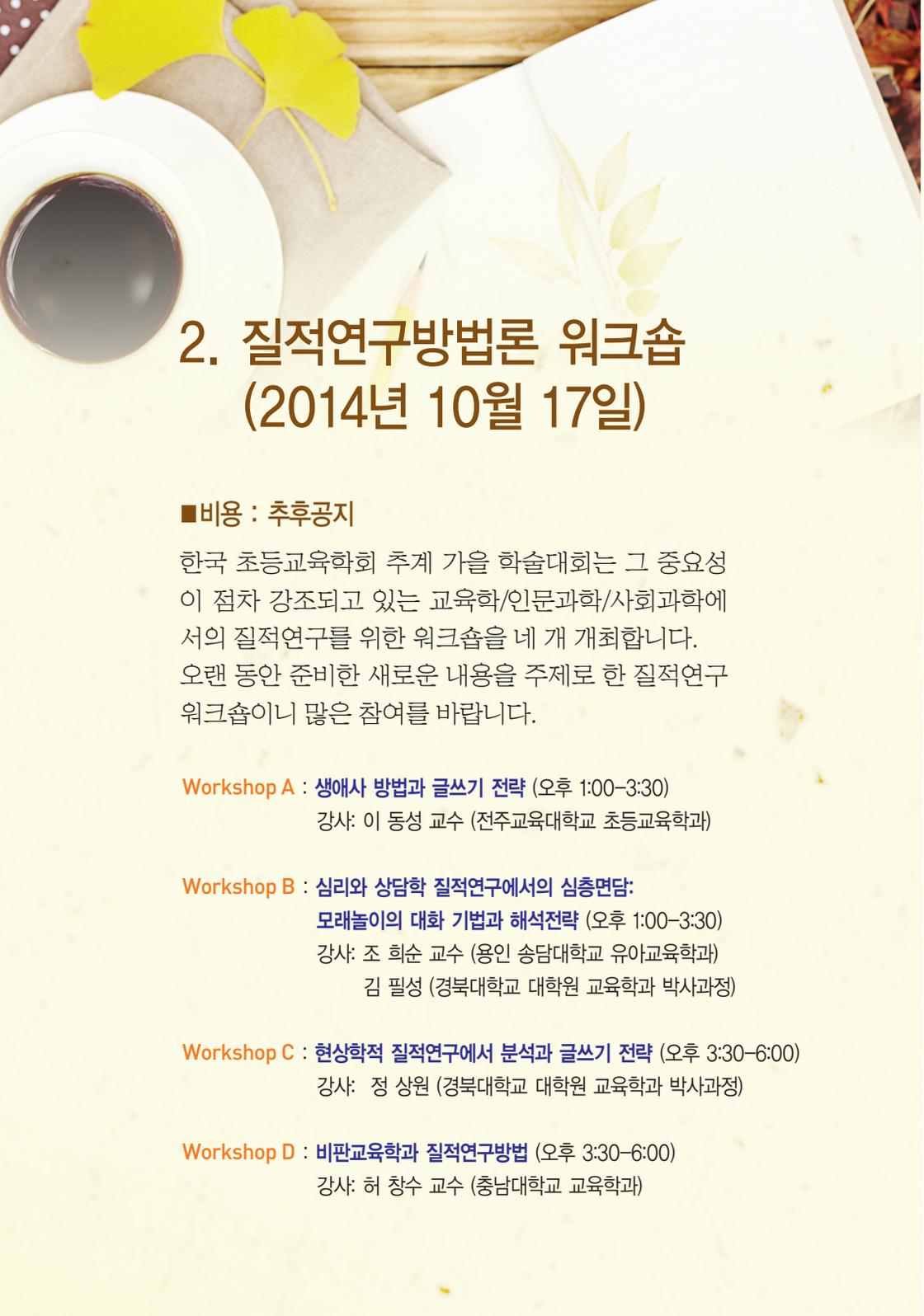


프로그램 4: 한국 학교교육 성취의 잠재적 교육과정 : Behind PISA와 TIMMS Test

매년 OECD 국가 학생들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SA와 TIMMS에서 평가하는 다른 중요한 학업적 특징들인 학습태도, 자신감, 지적 지구력과 협동 측면에서는 하위 점수를 받습니다. 이 후자의 영역들이 인생의 성공과 창의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을 때 우리 교육학자와 교사들은 과연 한국의 학교교육의 어떤 요소들과 문화들이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진지하게 학교의 교수와 학습의 문화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력과 능력에 대한 교육학적 진리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정서적/비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학교교육 속에서 또는 학교교육 바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5: 다민족, 다문화, 다국적 시대 속의 한국 아이들: 하이브리드와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이미 100만명 이상의 다문화 출신 인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인구학적 특징으로 한국의 일반 아이들 역시 그러한 다문화적 경험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특징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문화"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제화/세계화되어 버린 한국적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그 어떤 새로운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발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달라진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그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 논의하고 비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 (2014년 10월 17일)

■비용 : 추후공지

한국 초등교육학회 추계 가을 학술대회는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교육학/인문과학/사회과학에서의 질적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네 개 개최합니다. 오랜 동안 준비한 새로운 내용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 워크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Workshop A : 생애사 방법과 글쓰기 전략 (오후 1:00-3:30)

강사: 이 동성 교수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Workshop B : 심리와 상담학 질적연구에서의 심층면담:

모래놀이의 대화 기법과 해석전략 (오후 1:00-3:30)

강사: 조 희순 교수 (용인 송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 필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Workshop C :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분석과 글쓰기 전략 (오후 3:30-6:00)

강사: 정 상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Workshop D : 비판교육학과 질적연구방법 (오후 3:30-6:00)

강사: 허 창수 교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